

생활인구 중심 전남 인구정책 효과...지역 활력 회복 뚜렷

16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391만명 체류인구 321만...재방문을 전국 평균 ↑

전남도가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으로 지역 활력 회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는 9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월평균 39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등 등록인구에 통근·통학·관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지역 간 비교와 인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결과에서 전남의 등록인구는 70만명, 체류인구는 321만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은 4.6배에 달했다.

특히 전남은 생활인구 주요 특성 8개 지표 가운데 재방문을 40.8%, 체류일수 3.3일, 평균 숙박일수 3.7일, 타 시·도 거주자 비중 72.8%,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12만5천원 등 5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전남 방문이 단순 관광에 그치지 않고 체류·소비·재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지표로 평가된다.

전남도는 2024년 ‘20X 전남도 인구대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해 생활인구 중심 정책 전환 방

향을 제시했다.

2025년에는 ‘인구대전환 시즌2 생활인구 생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도정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도는 시·군과 정책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 인구정책 워크숍을 열고 생활인구 확대 전략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올해부터는 ‘생활인구 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연결·유입·성장’의 3대 전략 아래 20개 핵심 사업과 100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관계인구 확대, 체류인구 유치, 정주인구 전환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군별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도 추진한다. 관광·스포츠·귀농·귀촌·위케이션·체력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 사업으로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체류인구가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소비와 교류가 늘고 지역 활력도 커진다”며 “시·군과 협력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생활인구가 관계인구와 정주인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새마을회장단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 공동체 활성화·새마을회 발전 모색

김지사, 전남새마을회장단과 간담회

도민 화합·현안 해결 협력 등 논의

전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새마을회장단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새마을회 발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양재원 전남도 새마을회장, 박장덕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최

경옥 새마을부녀회장, 시·군 새마을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새마을회의 역할, 발전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고 조직 운영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지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회가 민간 자율단체로서 봉사나 나눔, 공동체 회복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전남도와 새마을회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새마을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도민 화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마을회는 오랜 기간 지역 곳곳에서 봉사나 나눔, 공동체 회복을 실천해 온 든든한 민간협력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섬진강어류생태관, 멸종위기 생물 특별전

8월31일까지 ‘기후위기, 그린희망’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이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멸종위기 생물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기후위기, 그린희망’을 운영하고 있다.

구례에 있는 섬진강어류생태관은 특별전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마련했으며, 오는 8월31일까지 섬진강어류생태관 상설전시관 로비에서 진행한다.

전시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주제로 구성됐다. 다양한 작품과 시각 콘텐츠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청소년의 시선과 감성이 담긴 작품도 함께 선보여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김재정기자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한다.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전시 기간 생태교육과 문화체험이 어우러진 체험형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지역 생태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역할도 넓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섬진강어류생태관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분위기를 위해 박람회 홍보 특별전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특별전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다양한 전시·홍보 콘텐츠를 활용해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13일 광주시립수목원서 사회적경제 ‘푸룻마켓’

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선봬

광주시는 9일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양과동 광주시립수목원에서 자연과 사회적 가치가 어우러지는 시민참여형 사회적경제마켓 ‘하이, 푸룻마켓’을 연다”고 밝혔다.

‘하이, 푸룻마켓’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광역자치발전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대표 가치소비 마켓이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시립수목원의 자연을 즐기며 사회적경제 가치를 친환경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하이, 푸룻마켓’은 2024년 첫 행사 후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여 규모와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3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비롯해 수공예품, 먹거리 등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와 개인 텀블러 사용을 권장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주물럭 비누 만들기, 키펀 및 불펜 꾸미기, 슬라임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공예 체험,

비눗방울·풍선(벌룬) 쇼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 합산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가 참여 기업에는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푸른 자연 속에서 착한 소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마켓은 시민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자리”라며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을 지속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인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킵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